

전문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 D대학 치기공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

배 봉 진, 이 화 식, 박 명 호

대구보건대학 치기공과

The research on the Career Consciousness of the College Students (revolve around D College Dental Technology Student)

Bong-Jin Bae, Hwa-Sik Lee, Myung-Ho Park

Dep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Abstract]

Purpose: The work of Dental technician which is part of national dental health, is more specialized recently. This research provides fundamental data from analyzing student's career consciousness according to needs of a career education.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analysis about student's career consciousness, that is for a right choice of career.

Methods: This study did questionnaire to a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student who locate in Taegu. Question response student number was 570 people. Response contents analyzed to 506 people except imperfect questionnaire. Data used windows sas 8.0 program and di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in what they want to know about an occupation according to ages. ($p < 0.01$) All ages are similar to their occupational thinking, however they who are under twenties consider working environment. Most motives of an entrance are similar,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p < 0.05$) According to a grade of college,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how to obtain informations of a career. ($p < 0.05$) Sophomores and juniors obtain information from seniors or family, however freshmen obtain from the internet because of an accessibility.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of a job meaning between men and women. ($p < 0.01$) Men are working for a means of living. But women give weight to a self-development.

The older they grow, the more they know about their aptitude. Selecting subjects are different choosing time & motive. According to ages and where they are from,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how much know about their aptitude. ($p < 0.05$) Older Students know more than young students. Selecting subjects are different choosing time & motive. In accordance with a grade, ages, and where they are from, there are different degrees about how much know their interests.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of a choosing major period and choosing informations. ($p < 0.01$) And also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where they are from and why they enter to College. ($p < 0.001$) In accordance with a grade, ages, and where they are from, there are different degrees about how much know their

교신저자	성명	배 봉 진	전화	053-320-1323	E-mail	baboji@dhc.ac.kr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1동 산7번지 대구보건대학 치기공과					
접수일	2010. 11. 5		수정일	201. 11. 16		확정일	2010. 11. 30

apitude.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of a choosing major period. ($p < 0.01$) And also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why they enter to College. ($p < 0.001$)

Conclusion: Although we know that a career education is very important, however lots of students select a career without their aptitude & interest & character. We need to teach a career education systematically; considering students career consciousness, with a proper career guidance, cultivating career consciousness.

○Key words : career consciousness, dental technology

I. 서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보다 전문화, 다원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의 습득과 그 정보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이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되지만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정체감을 형성하며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내린 결정은 다른 시기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남경민 2009).

인간이 살아 가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직장에서는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지식은 또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도 개인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고등학교의 성적과 가정환경만으로 순간적인 판단에 의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직업이란 생활유지수단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 나가고 사회적인 봉사를 누리며 자아실현에 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아실현이란 결국 참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직업은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 즉 생명적 의미, 사회적 의미, 지적의미, 종교적 의미 그리고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은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자신의 진로 준비와 계획에 도움을 줄수 있는가를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자아의식과 진로탐색 지도를 통하여 진로의식을 함양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진로설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유은숙, 2003).

국민 구강보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도 업무의 영역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진로 교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학생들의 진로의식 실태를 분석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할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시기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대구에 소재하는 D대학 치기공과에 재학중인 1, 2, 3학년 남, 여 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구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방법은 설문 조사원을 선정하여 설문 문항 설명을 통한 사전교육으로 조사원이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재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설문지의 회수는 535부로 회수율 93.86%이었으나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5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및 내용

조사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설문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게 설문지를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출신계열, 입학전형, 학과의 선택시기, 선택 정보, 입학동기, 일반특성에 따른 진로의식 비교, 치과기 공사에 대하여 알고 싶은 내용과 진로와 관련된 정보의 획득 경로 그리고 직업의 의미와 진로의식의 수준 차이, 적성과 흥미, 그리고 소질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 분석

1) 설문지의 자료 분석은 Window용 SA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을 이용하였다.

2) 각 요인별 유의성 검증은 t-검정(t-Test)과 분산분석(ANOVA)으로 분석하였다.

3) 차이 검정은 사후검정을 이용하였으며 각 분석에 사용한 유의성 검정은 χ^2 (chi-square) 검정을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연령, 직장경험, 출신지역, 출신계열, 입학전형, 학과 선택 시기, 학과 선택 정보, 입학 동기별로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특성을 성별로 보면 남학생(297명 58.70%), 여학생(209명 41.30%)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173명 34.19%), 2학년(164명 32.41%), 3학년(169명 33.40%)으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 도	비율(%)	특 성	구 분	빈 도	비율(%)
성별	남학생	297	58.70	입학전형	농어촌전형	33	6.52
	여학생	209	41.30		대졸전형	26	5.14
학년	1학년	173	34.19		기타	10	1.98
	2학년	164	32.41	고3 이전	80	15.81	
	3학년	169	33.40	고3 1학기	172	33.99	
연령	20세 이하	143	28.26	학과선택 시기	진학 상담시	59	11.66
	21세-23세	197	38.93		원서 접수시	77	15.22
	24세 이상	166	32.81		수능점수 결과로	35	6.92
직장경험	유	116	22.92		기타	83	16.40
	무	390	77.08	학과선택 정보	본인	210	41.50
성별	대도시	248	49.01		부모·친지의 권유	179	35.38
	중소도시	258	50.99		교사의 권유	28	5.53
출신계열	일반계	381	75.30		선배·친구의 권유	44	8.70
	상업계	53	10.47		기타	45	8.89
	공업계	55	10.87	적성을 고려	161	31.82	
	농업계	4	0.79	성적을 고려	29	5.73	
	기타	13	2.57	입학동기	취업률이 높아서	169	33.40
입학전형	일반전형	342	67.59		경제적 고려	85	16.80
	특별전형	91	17.98		기타	62	12.25
	특별전형(독자·산업체·자격증)	4	0.79	계	506	100.00	

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1세-23세(197명 38.93%)가 가장 많았고 24세 이상(166명 32.81%) 그리고 20세 이하(143명 28.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경험의 무(390명 77.08%), 유(116명 22.92%)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장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출신지역에서는 중소도시(258명 50.99%), 대도시(248명 49.01%)로 나타났으며 출신계열별로는 일반계(381명 75.30%)가 가장 많고 공업계(55명 10.87%), 상업계(53명 10.47%), 기타(13명 2.57%) 그리고 농업계(4명 0.79%)로 대부분 일반계가 3/4정도이고 1/4이 전문계 학생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별로는 일반전형(342명 67.59%)이 가장 많고 특별전형(91명 17.59%), 농어촌전형(33명 6.52%), 대졸전형(26명 5.14%), 기타(10명 1.98%) 그리고 특별전형(독자, 산업체, 자격증 4명 0.79%)으로 지원자의 2/3정도가 일반전형으로 나머지 1/3정도가 다른 전형으로 나타났으며 학과 선택 시기는 고3 1학기(172명 33.99%)가 가장 많고 기타(83명 16.40%), 고3 이전(80명 15.81%), 원서 접수시(77명 15.22%), 진학 상담시(59명 11.66%) 그리고 수능점수 결과(35명 6.92%)로 학과의 선택시기는 고3 1학기과 진학 상담시 그리고 원서 접수시가 60% 정도로 대부분이며 고3 이전에 결정한 학생은 15% 정도로 일찍 결정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저학년에 많은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본인(210명 41.50%), 부모·친지의 권유(179명 35.38%), 기타(45명 8.89%), 선배·친구의 권유(44명 8.70%) 그리고 교사의 권유(28명 5.53%)로 본인과 부모, 친지의 권유가 7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학과의 입학 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169명 33.40%)가 가장 높았고 적성을 고려(161명 31.82%), 경제적 고려(85명 16.80%), 기타(62명 12.25%) 그리고 성적을 고려하여(29명 5.73%)의 순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률이 높아서가 33% 정도로 취업률에 비중이 높고 적성을 고려해서 입학할 하게 되는 경우가 32% 정도로 나타났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의하면 남녀 직장인 307명을 대상으로 대학시절 제일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3.6%가 내 적성 파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 했어야 했더라란 답변으로 나타나 적성이 무엇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 일반특성에 따른 진로의식 비교

1) 치과기공사에 대하여 알고 싶은 내용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기공사에 대하여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하여 성별, 학년, 연령, 학과 선택 정보, 입학 동기별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치과기공사에 대하여 알고 싶은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기술정도(120명 40.40%)가 높고 수입금액(58명 19.53%), 지식정도(43명 14.48%), 작업환경(29명 9.76%)의 순이나 여학생은 기술정도(94명 44.98%)가 높고 수입금액(44명 21.05%), 작업환경(26명 12.44%), 지식정도(22명 10.53%), 일의 내용(17명 8.13%)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학생 모두 알고 싶은 내용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에서 남학생은 지식정도와 작업환경의 순이었으나 여학생은 작업환경과 지식정도로 나타나 여학생은 작업환경을 중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기술정도(78명 45.09%)가 높고 수입금액(32명 18.50%), 작업환경(23명 13.29%), 지식정도(20명 11.56%), 일의 내용(18명 10.40%)의 순이나 2학년은 기술정도(65명 39.63%)가 높고 수입금액(36명 21.95%), 지식정도(20명 12.20%), 작업환경(18명 10.9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은 기술정도(71명 42.01%)가 높고 수입금액(34명 20.12%), 지식정도(25명 14.79%), 기타(16명 9.4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학년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로 알고 싶은 내용은 거의 같으나 1학년에서 작업환경은 2, 3학년 보다 우선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는 기술정도(61명 42.66%)가 높고 수입금액(28명 19.58%), 작업환경(22명 15.38%), 일의 내용(16명 11.19%)의 순이고 21세-23세는 기술정도(82명 41.62%)가 높고 수입금액(43명 21.83%), 지식정도(31명 15.74%), 작업환경(18명 9.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4세 이상은 기술정도(71명 42.77%)가 높고 수입금액(31명 18.67%), 지식정도(20명 12.05%), 작업환경(15명 9.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20세 이하에서는 작업환경에 대하

표 2. 치과기공사에 대하여 알고 싶은 내용

특 성	구 분	일의내용	수입금액	지식정도	기술정도	작업환경	기타	χ^2 (p)
성 별	남학생	26 (8.75)	58 (19.53)	43 (14.48)	120 (40.40)	29 (9.76)	21 (7.07)	7.1579 0.2092
	여학생	17 (8.13)	44 (21.05)	22 (10.53)	94 (44.98)	26 (12.44)	6 (2.87)	
학 년	1학년	18 (10.40)	32 (18.50)	20 (11.56)	78 (45.09)	23 (13.29)	2 (1.16)	17.9724 0.0554
	2학년	16 (9.76)	36 (21.95)	20 (12.20)	65 (39.63)	18 (10.98)	9 (5.49)	
	3학년	9 (5.33)	34 (20.12)	25 (14.79)	71 (42.01)	14 (8.28)	16 (9.47)	
연 령	20세 이하	16 (11.19)	28 (19.58)	14 (9.79)	61 (42.66)	22 (15.38)	2 (1.40)	23.3527 0.0095
	21세-23세	16 (8.12)	43 (21.83)	31 (15.74)	82 (41.62)	18 (9.14)	7 (3.55)	
	24세 이상	11 (6.63)	31 (18.67)	20 (12.05)	71 (42.77)	15 (9.04)	18 (10.84)	
학과선택 정보	본인	15 (7.14)	47 (22.38)	23 (10.95)	95 (44.24)	20 (9.52)	10 (4.76)	17.5887 0.6145
	부모·친지의 권유	19 (10.61)	29 (16.20)	26 (14.53)	75 (41.90)	21 (11.73)	9 (5.03)	
	교사의 권유	0 (0.00)	5 (17.86)	3 (10.71)	12 (42.86)	5 (17.86)	3 (10.71)	
	선배·친구의 권유	6 (13.64)	9 (20.45)	6 (13.64)	14 (31.82)	7 (15.91)	2 (4.55)	
	기타	3 (6.67)	12 (26.67)	7 (15.56)	18 (40.00)	2 (4.44)	3 (6.67)	
입학동기	적성을 고려	16 (9.94)	23 (14.29)	20 (12.42)	81 (50.31)	15 (9.32)	6 (3.73)	34.3194 0.0240
	성적을 고려	1 (3.45)	7 (24.14)	3 (10.34)	10 (34.48)	5 (17.24)	3 (10.34)	
	취업률이 높아서	11 (6.51)	37 (21.89)	26 (15.38)	70 (41.42)	22 (13.02)	3 (1.78)	
	경제적 고려	10 (11.76)	25 (29.41)	8 (9.41)	27 (31.76)	8 (9.41)	7 (8.24)	
	기타	5 (8.06)	10 (16.13)	8 (12.90)	26 (41.94)	5 (8.06)	8 (12.90)	

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과선택 정보의 경로를 보면 본인에서는 기술정도(95명 44.24%)가 높고 수입금액(47명 22.38%), 지식정도(23명 10.95%), 작업환경(20명 9.52%)의 순이고 부모·친지의 권유는 기술정도(75명 41.90%)가 높고 수입금액(29명 16.20%), 지식

정도(26명 14.53%), 작업환경(21명 11.7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권유, 선배·친구의 권유 그리고 기타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타났다. 학과선택의 정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인이나 부모·친지의 권유로 입학한 학생들은 기술정도, 수입금액, 지식정도 다

음에 작업환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입학동기별로 보면 적성을 고려한 경우는 기술정도(81명 50.31%)가 높고 수입금액(23명 14.29%), 지식정도(20명 12.42%), 일의 내용(16명 9.94%)의 순이고 취업률이 높아서는 기술정도(70명 41.42%)가 높고 수입금액(37명 21.89%), 지식정도(26명 15.38%), 작업환경(22명 13.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고려와 기타의 경

우도 거의 같은 내용이며 입학동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2) 진로와 관련된 정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와 관련된 정보의 획득 경로에 대하여 성별, 학년, 연령, 학과 선택 정보, 입학 동기별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진로와 관련된 정보

특 성	구 분	인터넷	현장탐방	전시회 및 세미나	학교	선배 및 친지	χ^2 (p)
성 별	남학생	82 (27.61)	44 (14.81)	13 (4.38)	59 (19.87)	99 (33.33)	2.3088 0.6792
	여학생	53 (25.36)	24 (11.48)	10 (4.78)	41 (19.62)	81 (38.76)	
학 년	1학년	66 (38.15)	14 (8.09)	5 (2.89)	34 (19.65)	54 (31.21)	24.0719 0.0022
	2학년	36 (21.95)	24 (14.63)	8 (4.88)	37 (22.56)	59 (35.98)	
	3학년	33 (19.53)	30 (17.75)	10 (5.92)	29 (17.16)	67 (39.64)	
연 령	20세 이하	51 (35.66)	11 (7.69)	4 (2.80)	30 (20.98)	47 (32.87)	13.2960 0.1021
	21세-23세	45 (22.84)	32 (16.24)	11 (5.58)	36 (18.27)	73 (37.06)	
	24세 이상	39 (23.49)	25 (15.06)	8 (4.82)	34 (20.48)	60 (36.14)	
학과선택 정보	본인	57 (27.14)	30 (14.29)	8 (3.81)	45 (21.43)	70 (33.33)	16.9166 0.3910
	부모·친지의 권유	48 (26.82)	27 (15.08)	10 (5.59)	30 (16.76)	64 (35.75)	
	교사의 권유	8 (28.57)	1 (3.57)	3 (10.71)	3 (10.71)	13 (46.43)	
	선배·친구의 권유	10 (22.73)	8 (18.18)	1 (2.27)	8 (18.18)	17 (38.64)	
	기타	12 (26.67)	2 (4.44)	1 (2.22)	14 (31.11)	16 (35.56)	
입학동기	적성을 고려	45 (27.95)	26 (16.15)	8 (4.97)	29 (18.01)	53 (32.92)	19.0009 0.2686
	성적을 고려	3 (10.34)	4 (13.79)	3 (10.34)	9 (31.03)	10 (34.48)	
	취업률이 높아서	49 (28.99)	25 (14.79)	9 (5.33)	28 (16.57)	58 (34.32)	
	경제적 고려	23 (27.06)	9 (10.59)	3 (3.53)	17 (20.00)	33 (38.82)	
	기타	15 (24.19)	4 (6.45)	0 (0.00)	17 (27.42)	26 (41.94)	

진로와 관련된 정보의 획득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선배 및 친지(99명 33.33%)가 높고 인터넷(82명 27.61%), 학교(59명 19.87%), 현장탐방(44명 14.81%)의 순이나 여학생은 선배 및 친지(81명 38.76%)가 높고 인터넷(53명 25.36%), 학교(41명 19.62%), 현장탐방(24명 11.48%)의 순으로 남녀 모두 같은 경로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에서 남녀 모두 학교보다 선배 및 친지가 높은 것은 학교의 역할이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인터넷(66명 38.15%)이 높고 선배 및 친지(54명 31.21%), 학교(34명 19.65%), 현장탐방(14명 8.09%)의 순이며 2학년은 선배 및 친지(59명 35.98%)가 높고 학교(37명 22.56%), 인터넷(36명 21.95%), 현장탐방(24명 14.63%)의 순이고 3학년은 선배 및 친지(67명 39.64%)가 높고 인터넷(33명 19.53%), 현장탐방(30명 17.75%) 그리고 학교(29명 17.16%)의 순으로 학년별 정보의 획득 경로는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는 인터넷(51명 35.66%)이 높고 선배 및 친지(47명 32.87%), 학교(30명 20.98%), 현장탐방(11명 7.69%)의 순이고 21세-23세는 선배 및 친지(73명 37.06%)가 높고 인터넷(45명 22.84%), 학교(36명 18.27%), 현장탐방(32명 16.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4세 이상은 선배 및 친지(60명 36.14%)가 높고 인터넷(39명 23.49%), 학교(34명 20.48%), 현장탐방(25명 15.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년별과 연령에서 2, 3학년과 21세-23세, 24세 이상은 선배 및 친지라고 답한 반면 1학년과 20세 이하는 인터넷이라고 답한 것은 매체에 쉽게 접근할수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학과선택 정보의 경로를 보면 본인에서는 선배 및 친지(70명 33.33%)가 높고 인터넷(57명 27.14%), 학교(45명 21.43%), 현장탐방(30명 14.29%)의 순이고 부모·친지의 권유는 선배 및 친지(64명 35.75%)가 높고 인터넷(48명 26.82%), 학교(30명 16.76%), 현장탐방(27명 15.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권유, 선배·친구의 권유 그리고 기타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경

로를 보면 본인과 부모, 친지의 권유에서 똑같이 선배 및 친지, 인터넷, 학교, 현장 탐방순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학교의 역할이 보다 증가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입학동기별로 보면 적성을 고려한 경우는 선배 및 친지(53명 32.92%)가 높고 인터넷(45명 27.95%), 학교(29명 18.01%), 현장탐방(26명 16.15%)의 순이고 취업률이 높아서는 선배 및 친지(58명 34.32%)가 높고 인터넷(49명 28.99%), 학교(28명 16.57%), 현장탐방(25명 14.79%)의 순으로 그리고 경제적 고려와 기타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타나 입학동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진로와 관련된 정보는 같은 경로를 통하여 얻는 것으로 여겨진다. 채수영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진로 정보 획득 경로는 인터넷 73.9%, 진로 정보지 7.3%, 신문 잡지 3.5%, 현장 탐방 5.4%, 연수 및 세미나 참석 1.9%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의 의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의 의미에 대하여 성별, 학년, 연령, 학과 선택 정보, 입학 동기별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생계수단(124명 41.75%)이 높고 삶의 보람(77명 25.93%), 자아실현의 기회(62명 20.88%)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의미(31명 10.44%)의 순이나 여학생은 자아실현의 기회(77명 36.84%)가 높고 생계수단(59명 28.23%), 삶의 보람(51명 24.40%)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의미(19명 9.09%)의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은 생계수단에 많은 비중을 두는데 비해 여학생은 자아실현의 기회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생계수단(55명 31.79%)이 높고 삶의 보람(53명 30.64%), 자아실현의 기회(46명 26.59%)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의미(18명 10.40%)의 순이며 2학년은 생계수단(60명 36.59%)이 높고 자아실현의 기회(45명 27.44%), 삶의 보람(38명 23.17%),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의미(16명 9.76%)의 순이고 3학년은 생계수단(68명

표 4.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의 의미

특 성	구 분	사회구성원의 의미	삶의 보람	생계수단	사회봉사의 기회	자아실현의 기회	χ^2 (p)
성 별	남학생	31 (10.44)	77 (25.93)	124 (41.75)	3 (1.01)	62 (20.88)	18.1108 0.0012
	여학생	19 (9.09)	51 (24.40)	59 (28.23)	3 (1.44)	77 (36.84)	
학 년	1학년	18 (10.40)	53 (30.64)	55 (31.79)	1 (0.58)	46 (26.59)	12.2392 0.1408
	2학년	16 (9.76)	38 (23.17)	60 (36.59)	5 (3.05)	45 (27.44)	
	3학년	16 (9.47)	37 (21.89)	68 (40.24)	0 (0.00)	48 (28.40)	
연 령	20세 이하	13 (9.09)	45 (31.47)	49 (34.27)	1 (0.70)	35 (24.48)	14.0443 0.0806
	21세-23세	18 (9.14)	48 (24.37)	61 (30.96)	3 (1.52)	67 (34.01)	
	24세 이상	19 (11.45)	35 (21.08)	73 (43.98)	2 (1.20)	37 (22.29)	
학과선택 정보	본인	23 (10.95)	50 (23.81)	81 (38.57)	4 (1.90)	52 (24.76)	15.0458 0.5213
	부모·친지의 권유	17 (9.50)	42 (23.46)	66 (36.87)	0 (0.00)	54 (30.17)	
	교사의 권유	1 (3.57)	8 (28.57)	11 (39.29)	1 (3.57)	7 (25.00)	
	선배·친구의 권유	6 (13.64)	16 (36.36)	10 (22.73)	1 (2.27)	11 (25.00)	
	기타	3 (6.67)	12 (26.67)	15 (33.33)	0 (0.00)	15 (33.33)	
입학동기	적성을 고려	13 (8.07)	46 (28.57)	47 (29.19)	2 (1.24)	53 (32.92)	23.0375 0.1127
	성적을 고려	2 (6.90)	7 (24.14)	15 (51.72)	1 (3.45)	4 (13.79)	
	취업률이 높아서	20 (11.83)	49 (28.99)	63 (37.28)	2 (1.18)	35 (20.71)	
	경제적 고려	11 (12.94)	15 (17.65)	34 (40.00)	0 (0.00)	25 (29.41)	
	기타	4 (6.45)	11 (17.74)	24 (38.71)	1 (1.61)	22 (35.48)	

40.24%)이 높고 자아실현의 기회(48명 28.40%), 삶의 보람(37명 21.89%),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의미(16명 9.47%)의 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은 생계수단과 삶의보람 그리고 자아실현의 기회의 순이었으나 2, 3학년은 생계수단과 자아실현의 기회 그리고 삶의 보람의 순으로 약

간의 차이를 나타냈으나 학년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는 생계수단(49명 34.27%)이 높고 삶의 보람(45명 31.47%), 자아실현의 기회(35명 24.48%)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의미(13명 9.09%)의 순이

고 21세-23세는 자아실현의 기회(67명 34.01%)가 높고 생계수단(61명 30.96%), 삶의 보람(48명 24.37%)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의미(18명 9.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4세 이상은 생계수단(73명 43.98%)이 높고 자아실현의 기회(37명 22.29%), 삶의 보람(35명 21.08%),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의미(19명 1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20세 이하의 생계수단과 삶의 보람 그리고 자아실현의 기회의 순이었으나 21세-23세는 자아실현의 기회와 생계수단, 삶의 보람의 순이었으며 24세 이상은 생계수단과 자아실현의 기회 그리고 삶의보람의 순으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으나 연령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과선택 정보의 경로를 보면 본인에서는 생계수단(81명 38.57%)이 높고 자아실현의 기회(52명 24.76%), 삶의 보람(50명 23.81%),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의미(23명 10.95%)의 순이고 부모·친지의 권유는 생계수단(66명 36.87%)이 높고 자아실현의 기회(54명 30.17%), 삶의 보람(42명 23.46%),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의미(17명 9.5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배·친구의 권유는 삶의 보람(16명 36.36%), 자아실현의 기회(11명 25.00%), 생계수단(10명 22.73%)의 순으로 교사의 권유와 기타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본인이나 부모, 친지의 권유에서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타났으며 학과선택의 정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입학동기별로 보면 적성을 고려한 경우는 자아실현의 기회(53명 32.92%)가 높고 생계수단(47명 29.19%), 삶의 보람(46명 28.57%)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의미(13명 8.07%)의 순이고 취업률이 높아서는 생계수단(63명 37.28%)이 높고 삶의 보람(49명 28.99%), 자아실현의 기회(35명 20.71%)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의미(20명 11.8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고려와 기타의 경우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타났다. 적성을 고려한 경우에는 자아실현의 기회와 생계수단 그리고 삶의 보람의 순으로 나타났고 취업률이 높아서는 생계수단과 삶의 보람, 자아실현의 기회의 순으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입학동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채수영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직업의 의미는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 35.7%, 사회 참여 10.3%, 삶의 보람 26.3%,

자아 실현 기회 24.7%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은 직업의 의미를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과 삶의 보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3. 일반특성에 따른 진로의식의 수준 차이

1) 진로의식의 수준 차이(적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의식의 수준 차이(적성)를 성별, 학년, 연령, 직장경험, 출신지역, 출신계열, 입학전형, 학과 선택 시기, 학과 선택 정보, 입학 동기 별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본인의 적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성별은 남학생과 여학생(3.44)은 같았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3.63)이 가장 높고 2학년(3.42) 그리고 1학년(3.29)의 순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적성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3학년의 경우는 3.63이고 1학년 경우는 3.29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4세 이상(3.52)이 가장 높고 21세-23세(3.51) 그리고 20세 이하(3.27)의 순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24세 이상의 경우는 3.52이고 20세 이하 경우는 3.27로 차이가 나타났다.

직장 경험의 유무는 유(3.51)와 무(3.43)로 나타났고 출신지역에서는 대도시(3.53)와 중소도시(3.36)로 나타났으며 출신지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출신계열별로는 기타(4.00)가 가장 높고 농업계(3.75), 일반계(3.45), 공업계(3.44) 그리고 상업계(3.26)로 나타났고 출신계열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입학전형별로는 특별전형(독자, 산업체, 자격증 3.75)이 가장 높고 대졸전형(3.58), 일반전형(3.49), 특별전형(3.32), 농어촌전형(3.24) 그리고 기타(3.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입학전형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과의 선택 시기는 고3 이전(3.71)이 가장 높고 기타(3.60), 고3 1학기(3.48), 수능점수 결과(3.40), 진학 상담시(3.25) 그리고 원서 접수시(3.09)로 본인의 적성을 파악한 학생들이 소신을 갖고 학과를 미리 선택한 것으로 생각되며 학과의 선택시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고3 이전의 경우는

표 5. 진로의식의 수준 차이(적성)

특 성	구 분	진로의식수준		F/t	특 성	구 분	진로의식수준		F/t		
		M	SD	p값			M	SD	p값		
성별	남학생	3.44	0.94	0.01 0.9950	입학전형	농어촌전형	3.24	0.90			
	여학생	3.44	0.92			대졸전형	3.58	0.76			
학년	1학년	b	3.29	5.84 0.0031		기타	3.20	1.14			
	2학년	ab	3.42		0.95	고3 이전	a	3.71	0.83		
	3학년	a	3.63		0.83	고3 1학기	ab	3.48	0.89		
연령	20세 이하	b	3.27	3.74 0.0244	학과선택 시기	진학 상담시	ab	3.25	1.01	4.75 0.0003	
	21세-23세	ab	3.51			0.90	원서 접수시	b	3.09		0.95
	24세 이상	a	3.52			0.91	수능점수 결과로	ab	3.40		1.06
직장경험	유	3.51	0.90	0.84 0.3995	기타	ab	3.60	0.87			
	무	3.43	0.94		본인	a	3.55	0.92			
출신지역	대도시	3.53	0.96	1.99 0.0475	학과선택 정보	부모·친지의 권유	ab	3.41	0.92	3.44 0.0086	
	중소도시	3.36	0.89			교사의 권유	b	2.89	0.96		
출신계열	일반계	3.45	0.89	1.78 0.1317		선배·친구의 권유	ab	3.36	0.89		
	상업계	3.26	0.88		기타	a	3.51	0.92			
	공업계	3.44	1.17		적성을 고려	a	3.86	0.82			
	농업계	3.75	0.96		성적을 고려	b	3.17	1.14			
입학전형	기타	4.00	1.00	12.86 0.0001	입학동기	취업률이 높아서	b	3.24	0.92		
	일반전형	3.49	0.89			경제적 고려	b	3.25	0.92		
	특별전형	3.32	1.11			기타	b	3.32	0.81		
	특별전형(독자·산업체·자격증)	3.75	0.50	0.3336							

abc : scheffe grouping

3.71이고 원서접수시 경우는 3.09로 차이가 나타났다.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본인(3.55)이 가장 높고 기타(3.51), 부모·친지의 권유(3.41), 선배·친구의 권유(3.36), 교사의 권유(2.89)로 나타나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접하거나 가까이 있는 분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생각되며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본인과 기타의 경우는 각각 3.55, 3.51이고 교사의 권유의 경우는 2.89로 차이가 나타났다.

학과의 입학 동기는 적성을 고려(3.86)한 경우가 가장 높고 기타(3.32), 경제적 고려(3.25), 취업률이 높아서(3.24) 그리고 성적을 고려하여(3.17)의 순으로 경제적 고려와 취업률이 높아서보다는 전문 분야에 대한 본인의 적

성 여부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학과의 입학 동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적성을 고려한 경우는 3.86이고 기타, 경제적 고려, 취업률이 높아서, 성적을 고려하여 경우는 3.32, 3.25, 3.24, 3.17로 차이가 나타났다. 채수영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적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전혀 모른다가 2.3%, 잘 모르고 있다 20.5%, 보통이다 20.9%,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9.1% 매우 잘 알고 있다 17.0%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은 본인의 적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의식의 수준 차이(흥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의식의 수준 차

이(흥미)를 성별, 학년, 연령, 직장경험, 출신지역, 출신계열, 입학전형, 학과 선택 시기, 학과 선택 정보, 입학 동기 별로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본인의 흥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성별은 남학생(3.70)과 여학생(3.69)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3.84)이 가장 높고 2학년(3.63)과 1학년(3.62)의 순으로 1.2학년은 거의 같으나 3학년은 1.2학년의 학습을 통하여 전문 분야에 대하여 흥미를 더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연령별로는 24세 이상(3.82)이 가장 높고 21세-23세(3.71) 그리고 20세 이하(3.55)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20세 이하에서 24세 이상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관심이

커져 흥미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되며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24세 이상의 경우는 3.82이고 20세 이하 경우는 3.55로 차이가 나타났다.

직장 경험의 유무는 유(3.78)와 무(3.67)로 나타났고 출신지역에서는 대도시(3.84)와 중소도시(3.56)로 대도시 학생들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출신지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출신계열별로는 기타(4.31)가 가장 높고 공업계(3.87), 농업계(3.75), 일반계(3.69) 그리고 상업계(3.47)로 전문계열에서 대체적으로 높고 일반계열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신계열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입학전형별로는 대졸전형(4.08)이 가장 높고 특별전형

표 6. 진로의식의 수준 차이(흥미)

특 성	구 분	진로의식수준		F/t	특 성	구 분	진로의식수준		F/t	
		M	SD	p값			M	SD	p값	
성별	남학생	3.70	0.92	0.12 0.9047	입학전형	농어촌전형	3.55	1.00		
	여학생	3.69	0.91			대졸전형	4.08	0.74		
학년	1학년	3.62	0.92	3.01 0.0499		기타	3.70	1.06		
	2학년	3.63	0.99		고3 이전	3.88	0.85			
	3학년	3.84	0.83		고3 1학기	3.63	0.85			
연령	20세 이하	b	3.55	3.29 0.0380	학과선택 시기	진학 상담시	3.51	0.97	3.95 0.0016	
	21세-23세	ab	3.71			0.93	원서 접수시	3.49		1.10
	24세 이상	a	3.82			0.88	수능접수 결과로	3.69		0.83
직장경험	유	3.78	0.93	1.14 0.2564	기타	4.00	0.84			
	무	3.67	0.91		본인	a	3.80		0.86	
출신지역	대도시	3.84	0.88	3.48 0.0005	학과선택 정보	부모·친지의 권유	a	3.68	0.90	4.48 0.0015
	중소도시	3.56	0.93			교사의 권유	b	3.07	1.09	
출신계열	일반계	3.69	0.89	2.81 0.0252		선배·친구의 권유	ab	3.57	1.02	
	상업계	3.47	0.93		기타	a	3.80	0.92		
	공업계	3.87	1.06		적성을 고려	a	4.08	0.75		
	농업계	3.75	0.96		성적을 고려	b	3.24	1.06		
입학전형	기타	4.31	0.75	12.52 0.0001	입학동기	취업률이 높아서	b	3.49	0.93	
	일반전형	3.70	0.87			경제적 고려	b	3.58	0.97	
	특별전형	3.63	1.06			기타	ab	3.68	0.83	
	특별전형(독자· 산업체·자격증)	4.00	0.82							

abc : scheffe grouping

(독자, 산업체, 자격증 4.00), 일반전형과 기타(3.70), 특별전형(3.63) 그리고 농어촌전형(3.55)의 순으로 나타나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보다 흥미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입학전형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과의 선택 시기는 기타(4.00)가 가장 높고 고3 이전(3.88), 수능점수 결과(3.69), 고3 1학기(3.63), 진학 상담시(3.51) 그리고 원서 접수시(3.49)로 나타났으며 학과의 선택시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본인과 기타(3.80)가 가장 높고 부모, 친지의 권유(3.68), 선배·친구의 권유(3.57), 교사의 권유(3.07)로 나타났다.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본인이 정보를 다양하게 얻고 부모, 친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 생각되며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본인과 기타, 부모 친지의 권유의 경우는 각각 3.80, 3.68이고 교사의 권유의 경우는 3.07로 차이가 나타났다.

학과의 입학 동기는 적성을 고려(4.08)한 경우가 가장 높고 기타(3.68), 경제적 고려(3.58), 취업률이 높아서(3.49) 그리고 성적을 고려하여(3.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과의 입학동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적성을 고려한 경우는 4.08이고 경제적 고려, 취업률이 높아서, 성적을 고려하여 경우는 3.58, 3.49, 3.24로 차이가 나타났다. 채수영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흥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전혀 모르다가 1.9%, 잘 모르고 있다 15.6%, 보통이다 21.6%,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0.2% 매우 잘 알고 있다 20.7%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은 본인의 흥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진로인식의 수준 차이(소질)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인식의 수준 차이(소질)를 성별, 학년, 연령, 직장경험, 출신지역, 출신계열, 입학전형, 학과 선택 시기, 학과 선택 정보, 입학 동기별로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본인의 소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성별은 남학생(3.53)이 약간 높고 여학생(3.49)

은 낮게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3.69)이 가장 높고 2학년(3.49) 그리고 1학년(3.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질이 파악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며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3학년의 경우는 3.69이고 1학년 경우는 3.37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4세 이상(3.67)이 가장 높고 21세-23세(3.52) 그리고 20세 이하(3.3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24세 이상의 경우는 3.67이고 20세 이하 경우는 3.34로 차이가 나타났다.

직장 경험의 유무는 유(3.60)와 무(3.49)로 나타났고 출신지역에서는 대도시(3.61)와 중소도시(3.42)로 나타났으며 출신지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출신계열별로는 기타와 농업계(4.00)가 가장 높고 공업계(3.64), 일반계(3.50) 그리고 상업계(3.36)로 나타났고 출신계열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입학전형별로는 대졸전형(3.81)이 가장 높고 일반전형(3.51), 특별전형(독자, 산업체, 자격증 3.50), 특별전형(3.49), 농어촌전형(3.48), 그리고 기타(3.4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보다 소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입학전형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과의 선택 시기는 기타(3.78)가 가장 높고 고3 이전(3.68), 수능점수 결과(3.51), 고3 1학기(3.49), 원서 접수시(3.30) 그리고 진학 상담시(3.29)로 나타났으며 학과의 선택시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본인(3.65)이 가장 높고 기타(3.58), 선배, 친구의 권유(3.50), 부모 친지의 권유(3.41), 교사의 권유(3.11)로 나타나 본인이나 선배, 친구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학과의 입학 동기는 적성을 고려(3.81)한 경우가 가장 높고 기타(3.52), 경제적 고려(3.46), 취업률이 높아서(3.32) 그리고 성적을 고려하여(3.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의 여부는 학습과정과 전문적인 실기분야의 습득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되며 학과의 입학동기

표 7. 진로의식의 수준 차이(소질)

특 성	구 분	진로의식수준		F/t	특 성	구 분	진로의식수준		F/t		
		M	SD	p값			M	SD	p값		
성별	남학생	3.53	0.95	0.47 0.6420	입학전형	농어촌전형	3.48	0.91			
	여학생	3.49	0.90			대졸전형	3.81	0.85			
학년	1학년	b	3.37	5.08 0.0066		기타	3.40	1.07			
	2학년	ab	3.49		0.96	고3 이전	3.68	0.85			
	3학년	a	3.69		0.88	고3 1학기	3.49	0.89			
연령	20세 이하	b	3.34	4.99 0.0072	학과선택 시기	진학 상담시	3.29	0.98	3.49 0.0041		
	21세-23세	ab	3.52			0.93	원서 접수시	3.30		1.06	
	24세 이상	b	3.67			0.93	수능점수 결과로	3.51		0.82	
직장경험	유	3.60	0.95	1.15 0.2489	기타	3.78	0.90				
	무	3.49	0.93		본인	3.65	0.93				
출신지역	대도시	3.61	0.92	2.31 0.0214	학과선택 정보	부모·친지의 권유	3.41	0.91	3.04 0.0171		
	중소도시	3.42	0.93			교사의 권유	3.11	1.03			
출신계열	일반계	3.50	0.89	1.80 0.1277		선배·친구의 권유	3.50	0.90			
	상업계	3.36	0.92		기타	3.58	0.92				
	공업계	3.64	1.14		입학동기	적성을 고려	a	3.81	0.82		7.41 0.0001
	농업계	4.00	1.15			성적을 고려	b	3.17	1.17		
기타	4.00	1.08	취업률이 높아서	b	3.32	0.91					
입학전형	일반전형	3.51	0.89	0.56 0.7279	경제적 고려	ab	3.46	1.01			
	특별전형	3.49	1.08		기타	ab	3.52	0.86			
	특별전형(독자·산업체·자격증)	3.50	1.29								

abc : scheffe grouping

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그리고 사후검정에서 적성을 고려한 경우는 3.81이고 취업률이 높아서, 성적을 고려하여 경우는 3.32, 3.17로 차이가 나타났다. 채수영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소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전혀 모른다가 3.5%, 잘 모르고 있다 24.0%, 보통이다 27.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3.1%, 매우 잘 알고 있다 12.4%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은 본인의 소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국민 구강보건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도

업무의 영역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진로 교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진로교육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재학생들의 진로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직업에 대하여 알고 싶은 내용은 연령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모든 연령에서 비슷하나 20세 이하에서는 작업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입학동기별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2. 진로와 관련된 정보의 획득 경로를 학년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2, 3학년은 선배 및 친지라고 답한 반면 1학년은 인터넷이라고 답한 것은 매체

에 쉽게 접근할수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3.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남학생은 생계수단에 많은 비중을 두는데 비해 여학생은 자아실현의 기회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생각된다.

4. 본인의 적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연령별과 출신지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연령이 많아질수록 적성을 잘 알고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과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학년이 높아질수록 적성을 잘 알고 있고 정보는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접하거나 가까운 분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과의 선택시기와 입학동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선택시기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이전이 가장 높은 것은 본인의 적성을 파악한 학생들이 소신을 갖고 미리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입학동기에서는 경제적 고려와 취업률이 높아서 보다는 전문 분야에 대한 본인의 적성 여부를 보다 중요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본인의 흥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학년별로 보면 3학년이 높은 것은 1,2학년의 학습을 통하여 전문 분야에 대하여 흥미를 더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연령별에서 24세 이상이 높은 것은 연령이 20세 이하에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관심이 커져 흥미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출신계열별로는 전문계열에서 대체적으로 높고 일반계열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과 연령 그리고 출신계열별에 있어서는 ($p < 0.05$) 학과의 선택시기와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필요한 정보는 본인과 기타가 높은 것은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본인과 부모, 친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출신지역에서는 대도시 학생들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의 입학 동기는 적성을 고려(4.08)한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신지역과 학과의 입학동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6. 본인의 소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출신지역에서는 대도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본인이나 선배, 친구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출신지역과 학과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학년별로는 3학년이 높고 2학년 그리고 1학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학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질이 파악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령별로는 24세 이상이 높고 학과의 선택 시기는 기타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과 연령별 그리고 학과의 선택시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학과의 입학 동기는 적성을 고려한 경우가 가장 높고 소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의 여부는 학습과정과 전문적인 실기분야의 습득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되며 입학동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도 개인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의 진로 의식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도를 통하여 진로 의식을 함양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진로 준비와 설계를 하는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태제, 배종훈, 강대구.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 학사, 30, 2003.
- 김충기.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동문사, 2000.
- 남경민. 학업우수 남자고등학생의 진로결정경험에 관한 질적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수돈.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농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4, 2004.
- 박란. 조리전공 고등학생의 전공 인식도 및 진로적성에

-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전통생활문화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 유은숙. 진로탐색 프로그램 적용이 중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2003.
- 이수진. 미용관련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직업관.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향장미용전공 석사학위논문, 3-4, 2004.
- 이원재. 대학생의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직업의식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46-57, 2006.
- 이혜은. 치과기공사의 전문직 자아개념 연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29(2), 35-47, 2007.
- 임근옥.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학과 선택 만족도 및 진로 방향에 대한 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주은주, 이현옥. w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 6(2), 119-125, 2006.
- 정현진. 관광계열 학생들의 진로의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4-105, 2005.
- 채수영.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와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대학원 기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4, 2006.
- 최요섭. 미용관련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직업관.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향장미용전공 석사학위논문, 3-4, 2004.